

예배순서

| | | |
|---------|---|--------|
| *경배와 찬양 | 나는 예배자입니다 /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하나님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내 주를 가까이 | 다같이 |
| 대표기도 | | 조운 |
| *성경봉독 | 골 3:12 | 박정호 |
| 말씀 |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 | 김상범 목사 |
| 응답찬양 | 여호와께 돌아가자 | 다같이 |
| *봉헌 | | 다같이 |
| *봉헌기도 | | 김상범 목사 |
| 광고 및 환영 | | 이운진 |
| *파송찬양 | 교회여 일어나라 | 다같이 |
| *축도 | | 김상범 목사 |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응답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 (골 3:12)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노동자는 교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마 16:18, 고전 3:16, 마 18:20).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이해할 때에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성도’로 부르십니다(고전 1:2, 신 7:6, 시 4:3). 다음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요 1:12, 엡 1:5). 마지막으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십니다(계 21:2, 요 3:29, 고후 11:2). 이 부르심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이 아닌 성도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이미 성도요, 거룩한 자녀요, 순결한 신부라고 완료형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보시는 근거는 여호와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입니다(엡 1:4).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차이가 날지라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Psalm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거룩을 잃고, 세속화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핵심적인 권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입니다(골 3:5, 9-10). 성도의 삶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던 습관, 세상에서 익숙하게 하던 버릇, 육신적 욕망의 충동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하면 바로잡아주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옛 습관을 버리려는 노력’과, ‘새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란 이런 분위기가 잘 정착된 교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과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갈 5:19-21). 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갈 5:22-23).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목장은, 우리 청년부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바울은 새사람된 공동체가 따를 좀 더 구체적, 실질적 권면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골로새서 3장). 첫째, 말(우리 입)을 신중하게 다룰 것을 말합니다(골 3:8-9). 기도나 말씀보다 우선해서 말을 주의 할 것을 강조한 것은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 관계를 오래 겪어 본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남을 비방하는 말을 금하고, 거짓말을 버리고 서로 진실된 말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골 3:13-14). 용납하는 마음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먼저 용납과 사랑을 받고, 나를 지키려 스스로 만든 마음의 방패들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공동체에게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변하고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납과 허용은 다릅니다. 비록 잘못된 것을 알지만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용납인데, 이를 허용으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용납을 받는 사람은 어려워도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도 하나님께 용납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이야말로 불완전한 우리들을 온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말로 존중하고, 잘못을 용납하고,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이면 그 공동체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즉, 셋째 “평강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골 3:15). 평강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리트머스입니다. 왜냐면, 평강은 영적 안정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계시는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산책

그리고 나서야, 바울은 공동체에 말씀이 풍성해야 함을 말합니다(골 3:16). 바울이 말씀의 풍성함보다 태도의 부분부터 먼저 강조한 것은 그만큼 공동체가 올바른 태도와 마음자세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봐도 결국 열매의 차이는 씨앗(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토양(마음)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에 대해 다소 우려스러운 말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우리 Psalm 공동체가 ‘옛 사람을 벗으려는 노력’과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교회 다워야 합니다. Psalm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Psalm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Psalm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순결함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 함께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나눔을 위한 질문

오늘 나눔은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질문들을 포함해 설교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설교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 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광고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정기 리더모임

2월 4일 (토) 저녁 7시, 교회

2023 청년부 수련회

기간: 3/10(금,저녁)-3/12(일,오후)
장소: 캠프버크너 (Camp Buckner)
3835 FM2342, Burnet, TX 78611
회비: early registration(by 2/18) - 학생 \$70/일반 \$75
regular registration(from 2/19) - 학생 \$85/일반 \$90

수련회 사인업 QR(Retreat sign up)



작년 수련회 피드백 Survey (2022 Fall Retreat Feedback)



Arise 금요 찬양 기도회

2월 3일(금) 오후 8시, 본당

다음세대 교사모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가 신청서

홈페이지 이용 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실에 제출

재정부

2022년 현금 내역을 원하시는 경우 현금 내역 신청서에 기입
문의 : 최병진 장로 (cbjkym@yahoo.com)

교역자 동정

John Staples 목사 / 김상범 목사 : ECO 전국총회 참석 (1/30~2/2)

새벽날개 찬양팀원 모집

대상 : 남/녀 싱어 (각 1~3명)
문의 :이연숙 집사 (512-924-8947)

팀원 모집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문의: 조학영)



찬양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제 51권 5호

01.
29.
23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